

中國 · 臺灣 · 홍콩 · 몽골

中 國

〈國內經濟〉

7월 1일 • 國有企業에 대한 M&A 증가 추세

국유기업에 대한 M&A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바, 작년도 전국의 56개 資本構造 最適化 實驗都市에서 360개 기업이 합병·파산되었으며, 華東地方의 경우 최근 2년간 총 2,500여개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음.(國際貿易)

7월 3일 • 공산품 재고총액 3조 元 초과

中國 國家統計局에 의하면 1996년말 현재 전국 鄉級 이상 공업기업의 재고품 누계 총액은 1조 3,276억 元(약 1,600억 달러)이며, 상업 재고까지 합칠 경우 총액은 3조 元(약 3,600만 달러)에 달함.(經濟日報)

7월 4일 • 對外貿易經濟合作部, 전국 500대 수출입기업 발표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최근 1996년도 전국 500대 수출입 기업을 발표. 이들 기업의 총 수출입액은 1,269억 8,0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9%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입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대형기업은 총 27개였음. 이중 상위 5대 기업은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中國糧油進出口總公司,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 中國石化國際事業公司, 中國五金鑛產進出口總公司임. 500대 기업중 중대형 생산기업은 38개로, 이 가운데 寶鋼集團國際經濟貿易總公司, 鎮海石油製煉化工股分有限公司, 儀征化纖股分有限公司는 50대 기업에 속했으며, 地區·市·縣級 대외무역회사 70개중 張家港市對外貿易公司, 珠海市振戎公司, 無錫市對外貿易公司, 威海市進出口公司가 100대 기업에 속했음. 이밖에 수출입경영권을 갖고 있는 생산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1996년도 100대 생산기업을 발표하였는바, 이들 기업은 중국 대외무역수출 확대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음.(經濟日報)

7월 6일 • 中國, 싱가포르 證市에서 자금조달 적극 추진

최근 中國銀行과 中國企業들이 싱가포르에서 잇따른 債券 발행과 株式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음. 최근 中國銀行은 中國 國務院 산하 企業集團인 中國光大集團과 공동으로 싱가포르에서 총 2억 달러 규모의 5년만기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였으며, 中國光大集團의 朱小華會長은 이번 채권발행을 계기로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 총괄회사인 “China Everbright Investment”를 설립, 금후로도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추진할 계획임.(日經)

7월 9일 • 商業銀行에 대한 정부의 대출압력이 은행 부실화 초래

中國 정부가 능력 없는 국유기업들에 타당성이 없는 여신을 제공토록 상업은행에 강요함으로써 中國의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美國의 DRI/McGraw-Hill 연구소가 분석.(조선)

7월 10일 • 新疆自治區, 庫·鄯 파이프라인 送油 개시

新疆위구르自治區 서부의 庫爾勒市에서 동부의 鄯善縣까지 491km를 연결하는 庫-鄯파이프라인(직경 610mm)이 착공 20개월만에 완공됨과 동시에 송유를 시작.(14일자 中國通信)

7월 11일 • 合資 貿易商社 설립을 최초로 인가

中國 정부는 최근 韓國의 대우, 선경을 비롯한 日本, 美國 등의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측과의 合資 貿易商社 설립을 최초로 인가하였음. 대우는 上海蘭生集團과 上海蘭生大宇公司(자본금 1,205만 달러, 대우측 지분 49%)를 설립, 우선적으로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한 후 물류 및 금융 분야에도 진출하여 연매출액 50억 달러의 종합상사로 발전시킬 계획임. 선경은 中國의 대형 무역회사인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CNTIC)와 上海浦東地區에 合資會社(자본금 약 1,200만 달러, 선경측 지분 49%)를 설립, 기술 및 설비 등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한편, 미쓰비시商社와 미국의 콘티넨탈 그레인社(Continental Grain)는 中國 제2의 무역회사인 東方國際集團과 東菱貿易公司(자본금 1,250만 달러, 지분 각각 27%, 22%, 51%)를 설립, 전기기계, 전자, 첨단산업제품 등의 수출입을 담당하게 됨. 이번 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서비스분야의 대외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에서의 합자 무역상사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에 설립되는 합자 무역상사는 기존의 중국 무역상사가 취급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광범위한 상품의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12일자 日經, 26일자 經濟日報)

• 證券監督委 主席 해임

中國 國務院은 금일 주요 기관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周道炯 中國 證券監督管理委員會 主席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周正慶 國務院 證券委員會 主任을 겸직토록 함. 한편 이번 인사는 최근 중국내 증권시장의 거품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주식투기 행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인식되고 있음.(12일자 日經)

• 해양 석유매장량, 총 14억 톤

中國의 해양석유산업이 근년 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금일 天津에서 개최된 全國海洋石油探查開發심포지움에서 中國海洋石油總公司가 발표. 同 公司의 자료에 따르면 82년 공사 설립후 지금까지 중국의 해양석유산업은 50억 달러의 외자를 직접 이용하였으며, 14억 톤의 석유 매장량 및 3,000m³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였음. 또한 이기간 동안 해양석유 생산량은 1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증가하였음.(15일자 中國通信)

• 전화가입자 수 7,000만 명 넘어

中國의 전화가입자 수가 6월말 현재 7,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금년 상반기의 신규가입자는 모두 1,094만 명이라고 郵電部가 발표.(15일자 中國通信)

7월 12일 • 大慶油田, 지금까지 1억 톤이상의 원유 생산

中國 최대 유전인 大慶油田의 금년 상반기 원유생산량이 당초 예상량을 초과하는 218만 톤(천연가스 생산량: 1억 9300만m³)에 달하며,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1933년 이후의 누적 생산량은 1억 톤 이상임.(15일자 中國通信)

7월 15일 • 中國, 상반기 GDP 증가율 9.5% 기록

中國의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GDP 실질증가율은 9.5%, 소비자 물가상승률(前年同期比)은 4.1%를 기록. 또한 금년 상반기의 工業生産增加率(前年同期比)은 11.6%로, 작년동기 증가율(13.2%)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상반기의 投資(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소비(消費財小賣額) 증가율도 각각 11.5% 내외, 12.1%로 작년동기 증가율(각각 11.9%, 13.2%)을 下廻했음. 상반기중 輸出은 전년동기 대비 26.2% 증가한 808억 달러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輸出回復勢가 이어졌음. 반면에 輸入은 0.1% 減少한 630억 달러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었음. 상반기의 貿易黑字는 17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상반기의 소매물가상승률(前年同期比)은 1.8%에 그쳐 6년만에 最低値를 기록.(經濟日報)

• WFP 및 IFAD, 四川省과 重慶市에 차관 제공

世界食糧計劃(WFP)과 國際農業開發基金(IFAD)은 향후 5년간 中國에 대해 1,900만 달러의 援助와 2,265만 달러의 低利 融資를 제공, 四川省 및 重慶市의 농업, 임업, 인프라건설 사업 등을 지원키로 함.(18일자 中國通信)

• 7~8월간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어로 금지

中國은 특정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7~8월 두달간 어로 활동을 금지한다고 中國 農業部가 밝힘. 이에 따라 북위 27~35도에 이르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는 트롤선의 어로가 전면 금지되며 일반 어선은 해안에서 30해리 이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음. 中國은 지난 95년과 96년에서 7~8월 두달간 어로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조선)

7월 17일 • 상반기 전자공업 생산, 26.5% 증가

금년 상반기 中國의 전자공업 생산총액이 1,626억 2,000만 元을 기록, 전년동기에 비해 26.5% 증가함. 상반기 동안 제품 판매율은 94% 정도이며 판매수입은 전년동기에 비해 18% 정도 증가한 190억 元이었음.(22일자 中國通信)

• 海南省과 본토를 잇는 철도 착공

中國 최남단의 海南省과 中國 대륙을 연결하는 粵海鐵道가 금년내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海南省 副省長이 밝힘. 同 사업은 92년 國務院으로부터 인가받았으며, 총투자액은 45억 1,800만 元, 건설기간은 3년 예정임. 이 철도는 廣東省 湛江市에서 출발, 瓊州海峽을 거쳐 海州市로 진입, 海南省의 기존 철도와 연결됨.(22일자 中國通信)

7월 20일 • 江澤民의 訪美, 중국의 WTO 가입에 유리할듯

오는 11월로 예정된 江澤民 主席의 美國 방문은 中國의 WTO 가입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아이젠스태트 美 國務次官이 밝힘. 그러나 同 차관은 中國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日經)

7월 22일 • 상반기 소비재 소매총액 1조 3,006억 元 기록

금년 상반기의 소비재 소매총액이 1조 3,006억 元(약 1,567억 달러)을 기록, 전년동기에 비해 14.1%(실질증가율: 12.1%) 증가했다고 中國國內貿易部 總經濟師가 밝힘.(人民日報)

7월 24일 • 朱鎔基 副總理, 외국인투자 규제 시사

朱鎔基 부총리가 최근 내부회의에서 국유기업의 경영악화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적인 원인 이외에 외자기업과의 과잉경쟁도 경영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고 홍콩의 『星島日報』가 보도.(26일자 중앙)

7월 26일 • 國有企業, 종업원지주제 도입키로

中國 정부는 오는 9월 20일로 예정된 黨 第15次 全國代表大會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국유기업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키로 하고, 추후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상장시킬 계획임. 中國 지도부는 15전대회 준비를 위해 개최중인 北戴河 中央工作會議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종업원지주제를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국가가 대주주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함. 李嵐清 副總理에 따르면 이 제도적 보완장치는 △ 심사를 통한 주식회사 전환, △ 정식직원에만 주식배당, △ 국가의 대주주 확립, △ 관리직과 생산직의 차별 금지, △ 종업원에 대한 선심성 주식 제공 금지, △ 종업원소유 株의 증시 거래 금지, △ 기명 위탁 관리, △ 법인명의 주식의 개인 분배 금지, △ 퇴직시 회사가 직원소유 주식 구입, △ 고정 배당금 보장 금지, △ 이사회 구성,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작성과 회계 감사 등 12개 규범으로 구성됨.(明報)

7월 27일 • 國家計劃委,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수정 제의

國家計劃委員會 산하 國際經濟研究所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外商獨資經營企業法 등 외국인투자 관련 3개 법률을 통합하고, ‘外商投資方向 指導 暫定 規定’과 ‘外商投資產業 指導目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 주요 건의 내용은 △ 투자 장려분야 폐지, △ 맥주, 화장품 등 중요하지 않은 산업을 투자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국가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만 제한, △ 투자제한 분야의 처벌 조항 마련, △ 중앙 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권 확대, △ 투자 지분 비율, 기술이전, 연구 개발 관련 규정 제정 등임.(China Daily Business Weekly)

• 北京 금융시장, 여신 및 대출 크게 증가

안정적인 금융환경속에서 금년 상반기 北京市 금융시장이 크게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음. 中國 人民銀行 北京支社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북경소재 금융기관의 총 여신이 금년초에 비해 336억 4,000만 元 증가한 4,781억 1,000만 元을 기록하였음. 또한 은행권의 여신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1.3% 증가한 4,197억 6,000만 元을 기록했으며, 개인 예금은 18.3% 증가한 1,789억 5,000

만 元을 기록함. 한편 은행대출은 금년초에 비해 145억 4,000만 元 증가한 2,052억 6,000만 元을 기록하는 등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A.W.S.J.)

7월 28일 • 3차산업 비중 증가 추세

國家統計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DP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금년 1/4분기 GDP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 전년동기비 1.2%포인트 증가하였음. 또한 고정자산투자중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56.5%에 달하고 있음. (홍콩 商報)

• 노동쟁의 급증으로 노동쟁의 처리법 제정 준비

최근 들어 노동쟁의가 빈번함에 따라 中國 정부가 노동쟁의 처리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勞動部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쟁의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59% 증가하였음. 또한 상반기 전국의 증재위원회가 수리한 노동쟁의는 2만 6,600건으로 관련 노동자는 총 10만 명 정도임. 쟁의가 빈번한 지역은 廣東省, 福建省 등 홍콩, 대만기업이 다수 투자한 지역과 국유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내륙의 重慶市, 東北의 遼寧省 등임. 쟁의 원인은 주로 장시간 노동, 복리후생 미비, 임금 체불 등임.(29일자 일경)

• 자동차 판매 부진현상 지속

금년 상반기동안 中國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7.3% 증가한 81만 3,600대인 반면 판매량은 同 7.4% 증가한 77만 4,800대로 여전히 판매량이 생산량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수요 증진정책(가격하락, 소형차 보유 기준 완화 등)이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한편 6월말 현재 자동차 재고량은 3월말의 11만 대보다 늘어난 13만 6,000대임.(홍콩 Standard)

• 國家計劃委, 컬러TV와 폴리에스테르 산업투자정보 발표

國家計劃委員會는 제2차 산업투자정보 발표회에서 컬러TV와 폴리에스테르산업의 발전 현황과 9차 5개년계획 발전목표, 발전전략 등 주요 정보를 발표. 컬러TV의 경우, 96년 생산량은 2,100만 대이며 이중 수출은 500만 대였음. 오는 2000년에는 생산 3,300만 대, 수출 800만 대를 계획하고 있음. 컬러TV 보급률은 도시의 경우 현재의 93.5%에서 2000년에는 97%로, 농촌은 현대의 30%에서 40%로 제고할 계획. 현재 중국의 컬러TV 생산량은 세계 3위이나 중저가 제품 위주이고 신제품 개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인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신규 사업을 불허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95년도 국내 생산능력은 190만 톤이지만 현재 17개 업체중 두 업체만이 연산 20만 톤의 규모로 대다수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바 국가계획위는 同 산업을 연산 10만 톤이상의 기업들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장려할 계획임.(29일자 人民日報)

• 미쯔비시, 하얼빈 및 瀋陽에서 자동차엔진 합자 생산

日本の 미쯔비시 자동차는 中國 航空工業總公司 및 中國航天汽車工業總公司를 합자 파트너로 하여 하얼빈에서 1,300cc, 2,000cc급 엔진을, 瀋陽에서는 2,400cc급 엔진을 각각 생산할 계획임.(經濟日報)

7월 30일 • 상반기 외국인투자 실행액, 207.21억 달러 기록

금년 상반기 中國의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는 9,763건 이었으며, 계약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229억 3,400만 달러인 반면, 실행액은 同 5.35% 증가한 207억 2,100만 달러를 기록. 상반기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 대형 투자항목의 비중이 높았으나, 1~5월간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항목이 8건, 17억 2,000만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비 300%, 370% 상승하였고, △ 합작 방식에 있어서는 독자기업형태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바 신규 합작기업의 45%가 독자기업형태이었으며, △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보세구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상승하였음.(31일자 經濟日報)

7월 31일 • 朱鎔基, 現代企業制度 확립을 강조

최근 朱鎔基 副總理는 遼寧省의 鞍鋼, 遼化, 撫順廠 등 10개 국유기업을 시찰하면서 대다수 중·대형 국유기업은 금세기말까지의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시: ① 국유기업의 관리층 건설을 계속 강화하되, 특히 기업의 공장장과 경리를 잘 선정해야 함. ② 합병 및 파산을 장려하고, 인력 재배치, 재취업, 퇴직 및 해고 등을 강화해야 함. ③ 직접용자 등의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의 부채감소와 자산증가를 지원해야 함.(經濟日報)

〈國內政治〉

7월 4일 • 江澤民 主席, 先경제발전 後민주화 주장

江澤民 國家主席 겸 黨總書記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룡'과 같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에야 민주화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紙가 보도. 江 主席은 제15차 黨大會 政治報告書 초안을 작성 중에 民主化改革과 관련하여 "경제가 상당수준으로 발전해야 민주개혁이 대중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S.C.M.P.)

7월 8일 • 中國共產黨員, 전체인구의 4.9%

中國의 共產黨員 수는 전체인구의 4.9%인 5,800여만 명이라고 『人民日報』가 보도. 지난 92년 제14차 黨大會 이후 새로 입당한 당원은 992만 5천명으로, 이중 절반이 기업 및 농촌의 생산종사자이거나 일선공직자들임. 한편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70.3%인 698만 2천명임.(人民)

7월 9일 • 中國 軍部, 武力強硬路線 주장

중국 군부는 오는 10월경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黨大會에서 군부의 위상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對臺灣 및 對外政策에 있어 무력강경노선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紙가 보도. 군부 지도자들은 臺灣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臺灣에 대한 제한적인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南沙群島에 대한 필리핀 등과의 영토분쟁에 중국 정부가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고 同 신문은 보도.(S.C.M.P.)

7월 16일 • 中國 指導部, 黨大會 앞두고 人事問題로 진통

중국 지도부는 금년 가을에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黨大會에서 채택될 政治路線에는 합의했으나 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홍콩의 신문들이 보도. 중국 지도부는 인사문제와 관련 朱鎔基 副總理의 總理任用에는 이견이 없으나 퇴임하는 李鵬 總理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음. 江澤民 主席은 현재의 江-李體制를 유지시킨다는 방침하에 喬石 全人大 常務委員長을 퇴임시키고 이 자리에 李 總理를 앉힌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喬委員長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17일자 중앙)

7월 18일 • 北戴河會議 개막

中國共產黨의 최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는 中共中央工作會議가 北戴河에서 개막돼 제15차 黨大會에서 단행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李鵬 總理의 거취, 後任總理 등의 人選問題 등을 비롯해 15차 黨大會 개최에 따른 제반 준비작업을 매듭지을 계획. 한편 이번 회의의 핵심은 내년 봄에 퇴진하는 李 總理의 향후거취에 대해 江澤民 主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으로, 현재 李 總理는 江 主席이 보유하고 있는 國家主席職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19일자 중앙)

7월 20일 • 中國 海軍, 대규모 軍事訓練 실시

中國 海軍은 臺灣 북쪽의 東中國海에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첨단무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文匯報』가 보도. 同 신문은 훈련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東海艦隊 소속 전함 1백대 이상이 첨단 기술의 미사일, 전자장비, 자동화무기 등을 동원해 지난 64년이래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 중국은 지난 88년 이후 尖端技術武器에 의한 局地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軍現代化를 위한 대규모 군사지출을 계속해 왔음. (21자 文匯報)

7월 23일 • 江澤民 · 喬石, 人事問題로 대립

江澤民 主席과 喬石 全人大 常務委員長이 中共 政治局 常務委員의 추가선발 문제를 놓고 대립중이라고 *South China Morning Post*紙가 보도. 同 신문에 따르면 오는 제15차 黨大會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기존위원인 劉華清 中央軍事委 副主席의 퇴진이 유력해 새로 3명의 상무위원을 선임해야 함. 이에 江 主席은 吳邦國 副總理, 丁關根 中央宣傳部長, 張萬年 中央軍事委 副主席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喬委員長은 尉健行 中央紀律檢查委 委員長, 遲浩田 中央軍事委 副主席, 李嵐清 · 錢其琛 副總理 등을 후보

로 내세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S.C.M.P.)

7월 24일 • 中國, 治安豫算 대폭 증액

江澤民 주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檢察과 公安 등 치안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지시했다고 『明報』가 보도.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 예산은 주로 각종 장비와 시설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임.(明報)

7월 25일 • 中國軍, 미사일 작전능력 향상

中國 人民解放軍은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 미사일 성능 및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적의 空襲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완비했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紙가 보도. 解放軍은 광학, 전자, 전장, 음향기술 등 각종 첨단과학기술을 동원, 정찰작전능력을 대폭 개선한데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공격력도 강화하였음.(S.C.M.P.)

7월 31일 • 江澤民 主席, 國防力強化 촉구

江澤民 主席은 北京에서 거행된 人民解放軍 建軍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와 지역안정 확보를 위해 보다 힘있고 강력한 군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날 江 主席은 “중국의 統一 및 安保와 관련된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동시에 世界平和와 安定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기르고 국가방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1일자 人民)

• 中國軍, 구조개편을 통한 軍現代化 추진

中國 人民解放軍 지상군은 그 동안의 구조개편으로 인해 포병, 기갑병력, 공병부대, 화학부대 등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관영 *China Daily*가 보도. 解放軍 總參謀部 兵種部長은 전체 중국군에서 이들 병과의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며, 이들 병과들은 첨단기술이 동원된 전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China Daily)

<대외관계>

7월 1일 • 中國, 홍콩특구통치 본격 착수

中國은 홍콩특별행정구 출범 첫날인 1일 中國 외교부를 대신해 현지의 외교 업무를 관장할 홍콩공서(公署)를 정식 개설함. 또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고 만성적인 주택난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특구 통치에 착수함. 그러나 中國은 홍콩통치 첫날인 이날 민주인사 3,000여명이 경찰 감시하에 가두 시위를 벌이도록 허용하는 등 대외 이미지를 감안한 정치적 유희 제스처를 보임. 이에 따라 이들 민주인사는 中國 본토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당독재 타도」 등의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함.(2일자 產經)

7월 2일 • 中國, “4자회담 참석” 공식발표

中國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南北韓 및 美國 등 관련국들의 4자회담

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唐國強 中國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4자회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찬성하고 4자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발표함. 지난 4월 韓·美 공동으로 개최를 제의한 이래 中國이 4자회담 참석을 공식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3일자 조선)

7월 7일 • 中國, 홍콩에 외교재량권 부여

홍콩특별행정구(SAR)정부는 항공서비스, 투자, 법집행 등 특정 외교분야에 한해 관련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中國外交部가 밝힘. 이같은 발표는 董建華 초대 홍콩특구행정장관이 홍콩에 파견된 中國측 최고위 관리인 馬統眞 외교부 駐홍콩특과원 公署長과 공식적인 면담을 가진 후 나온 것이라고 新華社가 보도함. 馬統眞 공서장은 이 자리에서 董建華 장관에게 錢其琛 부총리겸 외교부장의 서신을 전달함. 이 서신에는 “항공서비스 노선, 투자 진흥 및 보호, 범죄자 인도 및 이송, 범죄문제 상호지원 등의 분야에 관해 홍콩특구 정부가 관련국들과 쌍무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中國政府의 방침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보도함. 新華社는 홍콩특구정부가 기본법에 의거, 관련 외교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외교문제는 외교부특과원 공서가 전담하게 된다고 밝힘.(8일자 A.W.S. J)

7월 8일 • 홍콩, 臺灣과 첫 공식접촉창구 개설

臺灣과 홍콩이 처음으로 공식 접촉창구를 개설함으로써 앞으로 兩岸 접촉에 홍콩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對中國 교섭의 臺灣측 창구인 海峽交流基金會의 辜振甫 이사장과 董建華 홍콩특구수반은 홍콩에서 만나 두 지역 간 공식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鄭安國 臺灣 중화여행사 사장과 葉國華 홍콩특구수반 특별고문을 각각 양측 대리인으로 임명함. 辜振甫 이사장은 “이번 공식관계 수립으로 홍콩·대만 관계는 물론 양안관계도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唐國強 中國外交部 대변인은 「일종의 특구정부 대 특구정부의 접촉」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홍콩·臺灣간 공식접촉 또는 교류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홍콩특구가 본토의 승인 아래 臺灣과의 접촉에 나서고 있음을 간접시인함.(9일자 S.C.M.P.)

• 中國, 北韓에 식량 8만톤 원조

中國政府는 무상으로 8만톤의 식량을 北韓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北韓政府에 통고했다고 관영 新華社가 보도함. 이 통신은 北韓측이 中國 정부의 우호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함. 中國 정부는 금년 들어 1차로 7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통신은 덧붙임.(9일자 新華社)

7월 15일 • 中國, 李登輝 비자발급요청 거부 對美 촉구

中國은 美國이 李登輝 臺灣 총통의 통과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中國 외교부는 성명에서 臺灣이 美-中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먼

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美國이 李總統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美·中 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이와 관련, 臺灣 외교부는 美國이 통과 비자를 발급해줄 것으로 낙관한다고 이날 밝힘. 李總統은 오는 9월로 예정된 中美 방문을 위해 美國의 통과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함.(16일자 Reuter)

7월 28일 • 韓·中, 上海서 3차 어업실무회담

韓中 양국은 28일부터 사흘간 上海에서 3차 어업실무회담을 갖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에 따른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함.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6월 濟州에서 열린 2차 회담결과를 토대로 쟁점사항인 EEZ 경계문제와 분쟁해결절차등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임. 정부 관계자는 “中國은 현재 EEZ 경계획정에 앞서 잠정어업수역을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어업협정 체결에 앞서 EEZ 경계획정부터 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잠정어업수역 설정대신 잠정적인 경계선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힘. 정부는 또 中國 어선의 우리 영해침범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불법조업문제에 대한 中國측의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임. 회담에는 辛正承 외무부 亞·太局심의관과 劉大群 중국외교부 조약법률국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29일자 조선)

7월 30일 • 美·中, 10월 워싱턴서 정상회담

빌 클린턴 美 대통령과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美國務長官이 밝힘. 올브라이트장관은 錢其琛 中國 外交部長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 中國 국가원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中國의 공산화 이후 이번 회담이 최초임.(31일자 産經)

臺 灣

7월 1일 • 臺灣, 對中美 외교관계 강화

章孝嚴 外交部長은 4~5일 양일간 온두라스에서 중미 7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同 부장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등 7개국 외무장관과 만나 중미지역 13개 개발프로젝트에 대만이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Reuter)

7월 3일 • 1~5월 對EU수출 77억 1,000만 달러 기록

1~5월중 대만의 對EU수출이 77억 1,000만 달러에 달해 EU가 미국, 홍콩에 이어 대만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고 經濟部가 발표함. 한편 同 기간중

EU로부터의 수입은 84억 9,000만 달러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하였음.(4일자 工商時報)

7월 4일 • 對中投資 금지항목 확정

臺灣 經濟部는 철도, 도로, 항만, 지하철 등 13개 항목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와 에틸렌 등 17개 제조업분야, 부동산 투자 등의 서비스분야 등 총 40개 항목에 달하는 對中投資 금지항목을 확정함.(Reuter)

7월 5일 •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84% 기록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했다고 主計處가 발표함.(Reuter)

7월 7일 • 외국인노동자 고용 자유화

臺灣 行政院 勞動委員會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입대상 지역도 북한, 베트남, 파나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外國人勤勞者 仲介費問題 改善方案'을 발표함.(聯合報)

7월 8일 • 차세대 미사일함대 창설 추진

대만 해군은 차세대 미사일함대를 오는 2001년까지 창설하여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伍世文 海軍總司令員이 밝힘.(星島日報)

7월 12일 • 대만 주가 7년만에 최고치 기록

대만의 주가가 지속적인 자금유입과 투자심리 확대에 힘입어 12일 7년만에 최고수준인 9,501.08로 마감됨. 이날 거래량은 23억 2,000만주, 거래대금은 54억 2,000만 달러였으며 283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반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118개에 그쳤음.(Reuter)

7월 13일 • 상반기 對中投資 허가액 10.9% 감소

금년 상반기에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의 對中投資 승인액이 정부의 對中投資 억제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4억 9,578만 달러에 그침. 투자항목중 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부문 투자는 증가한 반면 발전소, 석유화학 등 대형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음. 최대 투자대상지역은 江蘇省이었으며 廣東省, 福建省, 山東省, 四川省의 순이었음.(Reuter)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출 잠정 승인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북한으로 반입할 핵폐기물의 선적을 잠정 승인하였으며 9월부터 선적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聯合報)

7월 16일 • 臺灣省 폐지

臺灣 立法院이 臺灣省 폐지 찬반투표에서 전체 321명 의원중 261명의 찬성으로 臺灣省 폐지안을 의결함. 집권당인 국민당은 대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臺灣省 정부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행정 효율성의 제고라는 명분하에 臺灣省 폐지를 결정하였음.(Reuter)

7월 17일 • 한국의 대만 공식명칭 변경에 항의

臺灣 外交部는 한국이 대만의 공식명칭인 'The Republic of China'를 'Chinese Taipei'로 변경한 데 대해 강민수 臺北주재 한국대표부 대표를 소환, 항의하

였다고 밝힘.(조선).

7월 18일 • 헌법개혁안 기결

대만의 헌법개정기관인 국민대회가 총통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헌법개혁안을 가결시킴. 금번 헌법개혁안에 따라 총통은 의회인 立法院의 승인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으며 의회해산권도 보유하게 됨.(Reuter)

• 8월중 개각 예정

대만정부는 민심수습의 일환으로 오는 8월 국민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직후 개각을 단행하고 連戰 행정원장 후임에 蕭萬長 前經濟部長을 임명할 예정임. 이에 따라 행정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連戰 부총통은 부총통직만 수행하기로 李登輝 총통과 당정 수뇌부간에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uter)

• 2/4분기 경제성장률 5.8% 기록

금년 1/4분기에 6.8%를 기록한 바 있는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口蹄疫과 대만달러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5.8%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中華研究院이 발표함. 同 연구원은 금년 3/4분기와 4/4분기 경제성장률을 각각 6.4%, 6.3%로 예측하고 금년 전체 성장률은 6.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中國時報)

7월 22일 • 국내증시 외자투자액 사상 최고액 기록

대만증시에 유입된 외자투자액이 22일 70억 1,000만 대만달러에 달해 지난 91년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Reuter)

7월 23일 • 대만달러 평가절하 지속

대만달러의 평가절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미1달러당 대만달러의 시세가 NT\$27.958을 기록해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최근 대만달러의 평가절하는 미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 증시에 유입되어 있던 외국자본의 해외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한편 대만 중앙은행은 최근 대만달러의 평가절하가 외국 환투기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중앙은행의 개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발표.(24일자 Standard)

• 6월 실업률 2.67% 기록

6월중 대만의 실업률이 2.67%에 달해 지난 86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主計處가 발표함. (Reuter)

7월 24일 • 상반기 무역흑자 35억 1,100만 달러 기록

1~6월중 대만의 무역액이 1,139억 1,5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수출이 587억 1,300만 달러, 수입이 552억 200만 달러로 35억 1,1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經濟部가 발표함.(Reuter)

• 6월중 신용장 내도액 103억 5,800만 달러 기록

臺灣 經濟部는 6월중 신용장 내도액이 103억 5,800만 달러에 달해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중 전자제품과 정보·통신제품의 신용장 내도액은 각각 17억 1,600만 달러, 17억 7,500만 달러에 달하였음. (工商時報)

- 7월 25일** •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900억 2,500만 달러 기록
6월말 현재 대만의 외환보유고가 전월대비 1,700만 달러 증가한 900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함.(Reuter)
- 中國石油公司, 8월중 원유가격 인하 시사
中國石油公司는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8월중에 국내원유가격을 3%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26일자 經濟日報)
- 7월 29일** • 4년간 10% 減軍 발표
대만은 향후 4년간 10% 감군계획을 실시하여 군병력을 현재의 45만 3,000명에서 4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孔繁定 國防部 대변인이 발표함. 금번 감군계획에 따르면 장성급은 25%가 감축되며 일반장교는 11~20%, 사병은 13%가 감축될 계획임.(Reuter)
- 7월 30일** • 내년 경제성장률 6.7% 예상
臺灣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가 98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각각 6.7%, 2.72%로 설정했다고 발표함. (Reuter)

홍 콩

- 7월 1일** • 홍콩주권 중국으로 귀속
155년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홍콩이 이날 0시를 기해 중국에 귀속,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홍콩특별행정구로 탄생함. 중국과 영국은 1984년 「홍콩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 홍콩 전지역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주도로 △ 홍콩기본법 채택(1990. 4) △ 籌備委員會 발족(1996. 1) △ 推選委員會 발족(1996. 11) △ 董建華 초대 행정장관 선출(1996. 12) △ 臨時立法會議 의원 선출(1996. 12) △ 주요 공무원 임명(1997. 2) 및 중심법원장 내정(1997. 5) 등의 주권 이양작업이 이루어져 왔음.(A.W.S.J., I.H.T., F.T.)
- 臨時立法會議 개원
홍콩의 임시입법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 발족직후인 1일 새벽 2시 45분에 첫 회의를 열고 △ 홍콩정청 소유 재산과 채권의 홍콩특별행정구 이양과 공무원 소속이전 등을 규정한 홍콩회귀법 △ 공안조례 △ 사단조례의 환원을 비롯한 10개 법안을 통과시킴.(Reuter)
- 7월 2일** • 董建華 행정장관 첫 기자회견
董建華 홍콩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 홍콩의 중국귀속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중반까지 입법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재다짐함. 또한 董建華 행정장관은 영국통치 막바지에 입법국에서 통과된 시민권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폐지될 것임을 시사함.(S.C.M.P.)
- 7월 4일** • 내년 3월 입법회의원 선거

홍콩특별행정구는 임시입법회의를 대체할 초대 입법회의 선거를 내년 3월 직접선거 형식으로 실시할 계획임. 특구 행정부는 이달내에 선거법 초안을 작성, 오는 10월에 임시입법회의에 상정한 후 선거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선거준비 위원회를 구성, 6개월간 준비작업을 한 후 내년 3월에 보통선거를 실시할 예정임.(明報)

7월 7일 • 주권반환 특수 관광객 20만명 기록

홍콩의 중국귀속과 관련해 주요 행사들이 개최되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수가 약 20만명에 달하였다고 홍콩관광협회가 발표.(조선)

7월 15일 • 주가 연 3일째 최고가 경신

홍콩 恒生指數가 15일 0.8% 상승하며 1만 5,487.24로 마감, 전날의 최고치 1만 5,370.94를 넘어서며 연 3일째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였음.(S.C.M.P.)

• **홍콩~深圳간 컨테이너화물 검사 철폐**

7월 15일부터 연간 800만 대에 달하는 홍콩~深圳간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통관검사가 철폐됨에 따라 통관시간이 종전보다 20% 단축됨.(文匯報)

7월 16일 • 臨時立法會議, 인권법 등 4개법 동결

임시입법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부가 동결을 요구한 7개 법중 △ 인권법 △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 △ 정치헌금 허용 △ 차별철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4개 법에 대한 효력을 10월말까지 동결하기로 의결함.(Reuter)

7월 18일 • 홍콩당국, 북한인 유입 경계

홍콩특별행정구 당국은 중국귀속이후 북한인들의 홍콩유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대북한 비자정책이 변경되지 않도록 중국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북한인에 대한 비자심사도 계속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임.(S.C.M.P.)

7월 21일 • 주권반환식 행사비에 1억 3,990만 홍콩달러 소요

홍콩의 주권반환식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한 1억 3,990만 홍콩달러에 달했다고 홍콩특별행정구 당국이 발표함. 총 소요비용중 3,460만 홍콩달러는 공익자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며 7,360만 홍콩달러는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충당될 예정임.(Reuter)

7월 26일 • 新晚報 폐간

홍콩의 마지막 석간지였던 新晚報가 경영난으로 인해 26일자 발행을 끝으로 폐간됨. 총 발행부수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친중국계 신문인 新晚報는 지난 5년동안 연간 13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 왔음.(Reuter)

7월 29일 • 6월 무역적자가 15.3% 감소

6월에 홍콩의 무역적자가 전년동월대비 15.3% 감소한 16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바 이중 수출이 同 9.4% 증가한 152억 5600만 달러, 수입은 同 6.4% 증가한 168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출중 재수출액은 129억 6,100만

달러로 10% 증가하였으며 국내수출은 22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해 금년들어 처음으로 증가세(5.9%)를 보였음. 이로써 금년 상반기 홍콩의 무역적자는 12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하였음.(S.C.M.P.)

몽 골

7월 2일 • 금년 상반기 金生産量 前年同期對比 63% 증가

몽골 中央銀行은 금년 상반기 금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63% 늘어난 2,153kg을 기록했으며, 금년도 생산량도 당초 목표치인 6.5톤보다 많은 8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금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지난해에도 전체 수출액의 14.2%인 6천만 달러를 기록. 몽골 정부는 2000년까지 금생산량을 14톤까지 늘릴 계획임.(Reuter)

7월 8일 • 국가통계국, 금년 상반기 주요통계치 발표

몽골 국가통계국은 금년 상반기 주요통계치를 발표하였는바, 우선 失業人口는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64,195명을 기록하였으며, 産業總生産은 1,369억 7천만 투그릭으로 34.6%가 증가함. 한편 銅생산은 224,400톤으로 26.3% 증가하였으나, 銅수출은 20.2% 감소.(Reuter)

7월 9일 • 選舉管理委員會, 補闕選舉 일정 확정

몽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바가반디(N. Bagabandi)의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구의 의원보궐선거를 8월 17일에 실시기로 확정. 현재 의회의 다수당인 民主聯合의 의석은 50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3분의 2의석에 1석이 부족함. 그러나 이번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몽골 서부의 자브칸(Zavkhan) 지방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몽골人民革命黨이 강세를 유지해온 지역임.(Reuter)

7월 15일 • 금년 6월의 消費者物價 前月對比 3.7% 상승

몽골 中央銀行은 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 이로써 금년 상반기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3.5%가 상승하였음.(Reuter)

7월 19일 • 내몽고자치구의 독립요구 시위

몽골의 내몽고자치구 독립추진 관련단체들은 내몽고자치구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내몽고 지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이날 시위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내몽고의 독립 및 정치범의 석방을 北京 當局에 요구.(Reuter)

7월 28일 • 몽골 투그릭화 평가절상

몽골 투그릭화가 지난 주에 비해 0.13% 평가절상되어 1달러에 800.32투그릭을 기록. 투그릭화는 지난 주에 1달러에 801.40투그릭으로 0.33% 평가절하되었으나, 일주일만에 다소 회복되었음.(Reuter)